

유럽 빅클럽들의 'A급 단골' 전훈지

이번엔 1인1실 '월드컵시물레이션' 숙소 내 '대표팀 전용식당'도 마련

2018러시아월드컵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의 주요 스케줄이 사실상 완성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월드컵 출전 32개국을 예비명단(35명)을 5월 14일 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신태용 감독은 이날 최종엔트리(23명)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회 개막을 열흘 앞둔 6월 4일이 최종엔트리 제출 마감일이지만 부상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최초 공개한 선수들을 그대로 러시아까지 데려갈 계획이다.

국내에서 두 차례 평가전과 강화훈련을 마친 대표팀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베이스캠프 입성에 앞서 항할 오스트리아 사전 캠프지(6월 3~11일)도 확정됐다. 후보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이 '로드 투 러시아' 스케줄을 사실상 완성했다. 6월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사전캠프를 치른 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한다. 현지 시설을 살펴본 신태용 감독의 머릿속에서 밑그림이 그려졌다. 스포츠동아DB

2~3곳을 놓고 고민하던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대한축구협회는 잘츠부르크 인근 유명 휴양지 레오강을 낙점했다.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도시답게 스키 관광이 유명한 레오강은 오래 전부터 유럽축구계에서 인기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아왔다. 주요 클럽들뿐 아니라 주요국가 대표팀들이 유럽선수권, 월드컵 등 메이저 이벤트를 앞두고 즐겨 찾는 지역이다. 대표팀 주축 공격수 황희찬(22)의 소속 팀 잘츠부르크도 틀날 때면 레오강에 훈련캠프를 차린다.

태극전사들이 머물 숙소는 잘츠부르크, 비엔나 등 주요 도시 공장에서 육로로 1~2시간 떨어진 '호텔 데어 크랄레르호프'다. 선택의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보다 쾌적함이 핵심이다. 신 감독은 고된 훈련을 마칠 제자들이 최대한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소를 몰색하다 이곳을 추천받고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결정했다.

고급 사우나 시설은 물론, 먹거리도 깔끔

하다. 호텔이 운영하는 직영 농장에서 싱싱한 유기농 채소들이 공급된다는 점도 높이었다. 그간 협회는 주요 국제대회에 조리장을 파견해왔는데, 오스트리아~러시아 여정을 포함 다르지 않다. 숙소 측은 체류 기간에 대표팀에 전용 식당과 조리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태극전사들은 오스트리아부터 1인 1실을 사용한다. 기존 A매치 원정 때는 2인 1실 기준이나 이번에는 월드컵 본선과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휴식에서도 선수단에 '월드컵 시물레이션'을 가동하는 셈이다. 대표팀 관계자는 "비용은 좀더 비쌀지언정, 충분히 그 가치를 한다고 봤다. 믿을 수 있는 곳"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공동개최한 유로 2008에서 러시아대표팀을 지휘한 거스 히딩크(네덜란드) 감독도 이곳에 여장을 풀고 본선을 준비한 바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축구

3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윤덕여호 월드컵진출 복잡한 셈법



여자축구대표팀이 11일 요르단 암만인터내셔널스타디움에서 끝난 2018 AFC 여자아시안컵 B조 예선에서 일본과 0-0으로 비겼다. 남은 베트남전 결과에 따라 2019프랑스여자월드컵 직행 여부가 걸린다. 두 눈을 질끈 감고 공중볼을 다루고 있는 주장 조소현(왼쪽). 임만(오른쪽) | 뉴스시스

베트남에 무조건 이긴다해도 日-호주 비길땐 골득실 따져야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그러나 복잡한 셈법이 태극양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윤덕여(57)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국가대표팀이 2019프랑스여자월드컵을 향해 조심스럽게 순항하고 있다. 한국은 11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인터내셔널스타디움에서 끝난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아시안컵 B조 예선 일본전에서 0-0으로 비겼다. 호주와 1차전(0-0)에 이은 두 경기 연속 무승부다.

전력상 열세로 예상됐던 한국은 초반부터 일본 공격진을 공공 묶으며 주도권을 잡았다. 포백 전략이 효과를 봤다. 수비가 안정되자 주장 조소현(30·아발드네스)을 기점으로 한 앞선 상대 문전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일본을 정반 슛 하나로 묶는 사이 5개의 슛을 기록하며 공세를 높였다. 후반 들어 연이어 위기를 맞은 한국은 그러나 새 수문장 윤영글(31·경주한수원)의 선방 속에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한국으로선 기다리던 첫 골과 첫 승은 맞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중간성적표를 얻었다. 세계랭킹 16위인 한국은 6위 호주와 11위 일본에 승점 3을 내주지 않으면서 조 2위 진입 청신호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조 2위 안에 들 경우 월드컵 직행 티켓이 주어진다.

이제 남은 경기는 13일 베트남전뿐이다. 현재로서는 셈법이 다소 복잡하다. 나란히 1승1무를 거둔 호주와 일본이 1위와 2위에 오른 가운데 한국이 2무로 3위, 베트남이 2패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이 베트남을 꺾는다는 가정 아래 일본-호주전에서 승패가 갈리면 한국은 조 2위로 본선에 오른다.

문제는 일본과 호주가 비겼을 때다. 이렇게 되면 승점과 승자승은 의미가 사라지고 골득실로 순위가 가려지게 된다. 현재 호주가 골득실 +8, 일본이 +4, 한국이 0을 기록 중인 만큼 한국으로선 베트남전에서 다득점 경기를 펼쳐야 한다.

윤덕여 감독은 "이번 예선에서 최소 승점 5를 생각했다. 현재 승점2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 최종전 결과에 따라 골득실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전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훈 기자 shutout@donga.com



리버풀 '10년만에 4강진출이야' 리버풀이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다시 한 번 기적을 썼다. 11일(한국시간) 2017~2018 UCL 8강 2차전에서 2-1로 이겨 1·2차전 합계 5-1로 대회 준결승에 올랐다. 10년 만에 4강 진출을 이뤄낸 리버풀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맨체스터(영국) | AP뉴시스

챔스리그 악몽 깬 클럽...메시 울린 '로마의 기적'

(리버풀 감독)

(AS로마)

통신원수첩

리버풀(잉글랜드)이 또 한 번의 기적을 향하고 있다. 리버풀은 11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원정 2차전에서 2-1로 이겨 1·2차전 합계 5-1로 10년 만에 대회 준결승에 안착했다.

분위기는 대단했다. 200파운드(30만원) 이상의 압표가 등장했고, 관중석은 하늘색 물결로 가득했다. 원정 1차전 0-3 패배를 딛고 대역전극을 기대하는 맨시티 팬들은 내내 초조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응시했다. 출발도 좋았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조기 우승이 임박한 맨시티는 전반 2분 라힘 스티어링의 패스를 받은 가브리엘 헤수스가 골 망을 가르며 추격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듯 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하프타임 때 심판진이 거칠게 항의한 맨시티 펠과르디올라 감독이 퇴장당하면서 리버풀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리버풀은 후반 11분 사디오 마네의 패스를 모해메드 살라가 중요한 원정 골을 터트렸다. 결국 후반 32분 피르미누의 추가골을 묶어 역전으로 성공하며 2007~2008시즌 이후 10년 만에 대회 4강에 올랐다.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은 "전반보다 후반에 더 압박하고 빈 공간을 줄이면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 우린 큰일을 해냈다. 앞으로가 더욱 흥미롭다"며 웃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정상이 유력한 FC바르셀로나도 맨시티처럼 무너졌다. AS로마(이탈리아) 원정에서 0-3 완패로 탈락했다. 홈 1차전에서 4-1로 이겼음에도 원정 다득점에 밀려 4강 진입에 실패했다. 소속 팀의 두 시즌 연속 대회 8강 탈락과 함께 2018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또 한 번 정상 등극을 희망한 '아르헨티나 영웅' 리오넬 메시의 꿈도 사라졌다. 이날 경기 출전으로 동료 안드레스 이냐에스타와 함께 UCL 통산 100경기에 나선 메시였지만 믿을 수 없는 '로마의 기적'에 고개를 떨거야 했다. 맨체스터(영국) | 허유미 통신원

'키다리 FW는 굵뜨다' 편견 지운 김신욱-말캉

197cm 김신욱·196cm 말캉 공중 장악 골결정력 뿐 아니라 민첩성까지 뛰어

축구에서 스트라이커는 가장 돋보이는 포지션이다. 최전방에서 득점을 책임지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머리 속에 그려지는 스트라이커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드리블을 치고 나가 골을 터뜨리거나 화려한 개인기술과 슈팅으로 공격을 마무리 하는 모습이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세계 축구를 뒤흔든 호나우두(은퇴·브라질)나 아스널의 전설로 활약한 티에리 앙리(은퇴·프랑스) 등이 스트라이커 이

미지에 부합하는 스타들이다.

스트라이커의 득점 기술 중에는 헤딩도 빼놓을 수 없다. 세트피스나 역습에서 비롯된 크로스가 문전으로 올라오고, 이를 헤딩 골로 연결하는 모습도 축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스피드와 개인기술, 여기에 180cm대 신장으로 공중볼 처리에도 능한 스트라이커들이 부각됐다.

다만 190cm대의 장신 스트라이커들은 공중볼에는 확실한 이점이 있지만 순발력이 떨어져 빠른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여기에 2000년대 중반부터는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하는 축구가 주를 이루면서 장신 스트



전북 김신욱

경남 말캉

라이커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나 K리그에서는 최근 2~3년 사이 장신 스트라이커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다. 토종 장신 스트라이커인 전북 현대의 김신욱(30·

197cm)과 경남FC의 '브라질족금' 말캉(24·196cm)은 2미터에 가까운 신장에 민첩성까지 갖췄다. 수비수들의 장신화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이들의 신장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높이에서 확실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전북과 경남은 아예 이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측면 공격수들의 움직임도 더 활발하게 가져가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골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김신욱, 말캉의 머리를 맞고 떨어진 볼로 2차 공격에 나설 수도 있어 공격 전술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데에도 유리하다. 특히 말캉의 대성공으로 외국인선수 선발 시 장신 스트라이커 영입을 고려하는 팀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키 큰 공격수는 굵뜨다'는 편견은 옛말이다. 장신 스트라이커는 이미 K리그 골잡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